

## 성인진입기 여성의 부모애착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과 외로움의 매개효과\*

김 누 리

신 나 나<sup>†</sup>

이화여자대학교 아동학과

본 연구는 성인진입기 여성 253명을 대상으로 부모에 대한 애착이 우울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과 자아존중감과 외로움을 통해 미치는 간접적 영향을 살펴보았다. 부모에 대한 애착, 자아존중감, 외로움 및 우울에 대한 자료는 자기보고식 질문지를 통해 수집하였으며, 이들 간의 관계에 대한 구조방정식 모형을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부애착 및 모애착 모두 자아존중감을 통해 우울에 영향을 미쳐, 부모에 대한 애착 수준이 높을수록 성인진입기 여성의 자아존중감이 높았으며, 이는 낮은 우울 수준으로 연결되었다. 매개변인으로서의 외로움의 역할과 관련하여, 부애착은 외로움을 통해 성인진입기 여성의 우울에 영향을 미쳤지만, 모애착이 외로움을 통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즉, 아버지에 대한 애착이 높을수록 성인진입기 여성은 외로움을 덜 경험하였으며, 이는 낮은 수준의 우울과 관련되었다. 마지막으로, 부애착 및 모애착 모두 자아존중감과 외로움을 통해 우울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즉, 부모에 대한 애착 수준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았고,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외로움 수준이 낮아져 우울이 감소하였다. 본 연구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제안된 성인진입기, 특히 이 시기 높은 우울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성인진입기 여성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을 탐색하였다. 이 중 특히 부애착과 자아존중감의 중요한 영향력을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결과가 시사하는 바를 논의하였다.

주요어 : 부모애착, 자아존중감, 외로움, 우울, 성인진입기 여성

\* 본 연구는 김누리의 석사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임.

본 논문은 2016년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6S1A3A2924375).

<sup>†</sup> 교신저자 : 신나나, 이화여자대학교 아동학과, 서울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E-mail: nanashin@ewha.ac.kr

보건복지부가 2011년에 조사한 정신질환실태조사에 의하면 주요 우울장애의 평생유병률은 6.7%로, 10년 전인 2001년에 비해 1.5배 이상 증가하였다(통계청, 2011).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14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에서 2013년 동안 우울증에 대한 진료비는 2,135억원에서 2,714억원으로 27.1% 증가하였다. 이렇듯 우울을 경험하는 개인의 수는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우울은 부적절한 분노 표출(유현숙, 정혜정, 이주연, 2012), 여학생의 위험한 성행동(McBride, Paikoff, & Holmbeck, 2003), 학업수행 저하(Verboom, Sijtsma, Verhulst, Peninx, & Ormel, 2014), 불안이나 약물남용(Le, Muñoz, Ippen, & Stoddard, 2003; Maag & Irvin, 2005) 등 다양한 부적응 행동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지표들은 우울이 개인적 측면뿐 아니라 국가 비용적 측면에서도 중요하게 연구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우울장애 유병률은 성별이나 발달단계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먼저 성별과 관련하여, 여성의 우울장애 평생유병률은 9.1%로 남성(4.3%)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통계청, 2011). 이러한 경향은 대학생(Dixon & Kurpius, 2008)과 청소년(김갑숙, 전영숙, 이철우, 2009; Nolen-Hoeksema & Girgus, 1994)을 대상으로 한 여러 연구들에서도 일관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발달단계와 관련하여, 주요 우울장애의 유병률은 30대가 28%로 가장 높았지만, 20대의 유병률도 24%로 12%인 10대의 2배에 달하였다(통계청, 2011). 따라서 주요 우울장애의 유병률이 높은 여성, 그 중에서도 유병률이 급격히 높아지는 20대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우울 연구가 필요하며, 특히 예방적 측면에서 우울에서의 개인차의 근원이 되

는 다양한 선행요인들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20대는 Erikson(1963)이 제안한 전 생애 발달 단계 중 성인기에 속하는 시기이지만, 최근에는 이 시기를 청소년 후기(Gomez & McLaren, 2007; Kong & You, 2013; Laible, Carlo, & Roesch, 2004), 혹은 성인 초기(DiTommaso, Brannen-McNulty, Ross, & Burgess, 2002; Larose, Guay, & Boivin, 2002)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다. 관련하여 Arnett(2000, 2006)은 이 시기가 연령상으로는 성인기에 속하지만, 취업, 결혼 및 출산과 같은 성인기 발달과업을 성취하지 못하여 여전히 부모에게 경제적, 정서적으로 의존하는 시기임을 주장하면서, 이 시기를 성인진입기(emerging adulthood)라 명명하였다. 성인진입기라는 새로운 발달 단계의 등장은 현대 사회의 사회구조 및 산업구조의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그 결과 현대의 20대는 과거의 20대가 수행했던 발달과업을 성취하기 위한 추가적인 탐색의 시간이 필요하게 되었다.

성인진입기는 성인으로서의 역할을 달성하기 위한 준비기로, 이 시기 부모는 양육의 연장선상에서 계속해서 자녀에게 경제적, 정서적 지원을 제공한다(Arnett, 2007; Nelson, Padilla-Walker, Christensen, Evans, & Carroll, 2011). 따라서 부모는 계속해서 자녀에게 영향력을 발휘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부모에 대한 애착은 성인진입기 자녀에게 중요한 발달자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애착은 자녀와 주 양육자 간의 정서적 유대감으로(Bowlby, 1969/1982, 1973, 1980), 생애초기 형성된 애착은 이후 내적작업모형(internal working model)으로 전환되어 전 생애에 걸쳐 그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 부모에 대한 애착이 성인진입기 자녀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선행연구들은,

부모와 안정된 애착을 형성할수록 우울을 덜 경험하며(유현숙 등, 2012; 최소정, 배대석, 장문석, 2010), 또래애착보다 부모애착이 우울에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김정민, 유안진, 2005). 또한 아버지에 대한 애착과 어머니에 대한 애착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과 경로를 살펴본 선행연구들은 일관적이지 않은 결과를 보고하고 있는데, 그 영향력이 유사한 것으로 나타난 연구(김갑숙 등, 2009)가 있는 반면, 부애착과 모애착이 다른 경로로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한 연구(이주연, 하상희, 2012)도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에 대한 애착을 분리하여, 각각이 성인진입기 여성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부모와의 애착이 성인진입기의 우울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살펴본 연구들에 더해, 부모 애착이 이 시기 자녀들의 개인적 특성을 통해 우울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 연구들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개인적 특성으로 대표적으로 연구된 것이 자아존중감(Rosenberg, 1965)과 외로움(Wei, Russell, & Zakalik, 2005)으로, 이 두 변인은 부모에 대한 애착에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우울을 설명하는 주 변인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부모애착과 우울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변인으로 주목받았다. 먼저 부모애착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부모와의 애착이 안정적일수록 청소년(Kostelecky, 2005; McGarvey, Keller, Brown, & DeLonga, 2010; Parade, Leerkes, & Blankson, 2009)과 대학생(백지숙, 2000; Wilkinson, 2004)은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을 형성하였다. 자아존중감은 또한 주관적 안녕감(김현정, 손정락, 2006), 아동기의 행복감(Cheng & Furnham, 2004), 불안(유병기, 2010; Greenberg

et al., 1992) 등과 같은 정서적 특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특히 우울과 같은 정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김현정, 손정락, 2006; 이운주, 김진숙, 2012; Beck, 1976; Coyne, Gallo, Klinkman, & Calarco, 1998; Dixon & Kurpius, 2008).

하지만 자아존중감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우울이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해왔는데, 자아존중감이 우울에 영향을 미친다고 제안한 연구들(이운주, 김진숙, 2012; Beck, 1976; Coyne et al., 1998)이 있는 반면, 우울이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연구들(이은경, 박성연, 2011; Butler, Hokanson, & Flynn, 1994)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 이에 Sowislo와 Orth(2013)는 자아존중감과 우울 간의 방향성을 명확히 밝히고자, 두 변인 간 관련성을 살펴본 77개의 종단연구를 메타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자아존중감에서 우울로의 인과적 방향성의 영향력이 더 큼을 확인하였다. 관련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종단연구에서도 자아존중감은 1년 후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Orth, Robins, & Roberts, 2008).

부모애착이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우울에 이르는 경로를 살펴보면, 부모애착은 자아분화와 자아존중감을 통해 우울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김갑숙 등, 2009). 또한 자아존중감과 유사한 변인인 자기가치감의 매개적 역할을 살펴본 연구(Kenny & Sirin, 2006)에서도 부모애착은 자기가치감을 통해 성인진입기의 우울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에 근거하여볼 때, 부모에 대한 애착이 성인진입기 여성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은 자아존중감에 의해

매개될 것으로 가정해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부모애착이 외로움을 통해 우울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먼저 부모애착은 청소년(김정민, 유안진, 2005; 도현심, 1999; 이지연, 2009; 임연진, 나유미, 2003)과 대학생(이인숙, 최해림, 2005; 전효정, 2005; Larose et al., 2002)의 외로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부모와 불안정 애착을 형성한 경우, 자녀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회피, 공격성, 지나친 불안과 같은 부적절한 태도를 보이게 되고, 이로 인해 친밀한 관계 형성에 문제를 경험하면서(Ainsworth, Blehar, Waters, & Walls, 1978) 외로움을 느낄 수 있다. 대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Larose 등(2002)의 연구에서는 전환적 시기에 부모에 대한 애착 수준이 낮을수록 자기의 부정적 표상과 일치하는 정보에 더 초점을 두게 되고, 이로 인하여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즉, 부모와의 불안정한 애착은 전환기에 그 부정적인 영향을 더 발휘하게 되고, 이를 통해 대인관계를 부정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외로움을 더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다.

외로움은 또한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러한 영향은 청소년(안명희, 2014; Witvliet, Brendgen, Lier, Koot, & Vitaro, 2010)과 대학생(Ceyhan & Ceyhan, 2008; Jackson & Cochran, 1990; Weeks, Michela, Peplau, & Bragg, 1980) 모두에게서 나타났다. 특히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단기 종단 연구(Wei et al., 2005)에서, 외로움을 경험할수록 6개월 후의 우울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들이 보고되었는데, Witvliet 등(2010)은 또래집단으로부터의 고립으로 인해 경험하는 청소년의 외로움이 1

년 후의 우울 뿐 아니라 2년 후의 우울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즉, 청소년기에 대인관계의 실패로 인하여 겪게 되는 부정적인 사회적 경험은 외로움으로 내재화 되고, 이는 이후의 우울을 증가시켰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통해, 외로움이 부모 애착과 우울 사이에서 매개적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지만, 세 변인을 모두 포함하여 살펴본 연구는 드물기 때문에 관련 변인으로 변인 간의 관계를 추측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Cooley, Van Buren과 Cole(2001)의 연구에서는 성인애착과 사회적 기술이 대학교 여자 신입생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였으며, 안명희(2014)의 연구에서는 모의 심리적 통제와 우울의 관계를 모-자녀 관계 만족도와 외로움이 매개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청소년 시기에 또래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경험은 외로움을 통해 우울에 영향을 미쳤다(Baker & Buagay, 2011). 이러한 선행연구들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부모애착과 성인진입기 여성의 우울 간의 관계에서 외로움의 매개적 역할을 탐색하였다.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들을 통해, 부모애착이 자아존중감과 외로움 각각을 통해 성인진입기 여성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매개변인으로 작용하는 두 변인, 즉 자아존중감과 외로움 간의 관련성도 보고되고 있다. 자아존중감이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이 낮아질수록 청소년의 외로움은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하였다(김정운, 김영희, 2009; 임연진, 나유미, 2003). 또한 아동 후기와 청소년기의 자아존중감과 외로움 간의 관계를 5년간의 종단연구를 통해 살펴본 결과, 낮은 수준의 자아존중감은 외로움을 증가시키

는 것으로 나타났다(Vanhalst, Luyckx, Scholte, Engels, & Goossens, 2013).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부모애착, 자아존중감, 외로움과 성인진입기 여성의 우울 간의 밀접한 관련성을 제안하고 있지만, 실제 네 변인을 모두 포함하여 살펴본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다만 본 연구의 변인과 유사한 변인을 사용하여 그 관련성을 보고한 연구들이 몇몇 나타나고 있는데, 먼저 전효정(2005)의 연구에서는 대학생이 지각한 아동기 부모애착의 수준이 낮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낮아지고, 이는 높은 수준의 외로움에 영향을 미쳐 생활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학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성인애착이 사회적 자기효능감과 외로움을 통해 6개월 후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고하고 있는데(Wei et al., 2005), 높은 수준의 불안정 애착을 가지고 있을수록 사회적 자기효능감은 낮아지고 외로움 수준은 높아져서 6개월 후의 우울에 영향을 미쳤다. 이처럼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부모애착, 자아존중감, 외로움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국내의 경우 외로움을 선행요인으로 한 우울 경로 연구가 매우 부족하다. 또한 성인진입기라는 독특한 발달단계에 속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우울에 이르는 경로를 연구한 것은 국내외 모두 드문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성인진입기 여성을 대상으로, 부모에 대한 애착, 자아존중감, 외로움, 우울 간의 구조적 관계를 확인하고, 이를 통해 부모에 대한 애착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직, 간접적인 경로를 탐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성인진입기 여성의 우울의 선행변인들을 탐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성인진입기 여성의 부모애착, 자아존중감, 외로움 및 우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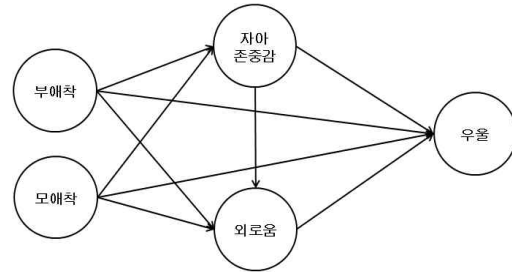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둘째, 성인진입기 여성의 부모애착이 우울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과 자아존중감과 외로움을 통한 간접적 영향은 어떠한가? 이러한 연구문제에 근거한 연구모형은 그림 1에 제시되어 있다.

## 방 법

###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시와 수도권에 거주하는 성인진입기에 속하는 여성 253명이다. 성인진입기는 주요 우울장애가 증가하는 시기로(Schulenberg & Zerrett, 2006), 특히 여성의 경우 10대에서 20대로 전환되는 시기에 우울장애 유병률이 2배로 증가한다는 통계청(2011)의 보고에 근거하여 성인진입기에 해당하는 여성을 본 연구의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먼저 평균 연령은 만 22.38세( $SD = 1.67$ )로, 연령의 범위는 만 19~25세였다. 학업상황을 살펴보면 대학교 재학 중이 194명(76.7%)으로 가장 많았고, 대학 졸업 26명(10.3%), 대학원 재학 중 31명(12.3%), 석사 졸업 2명(0.8%) 순이었다. 전공의 경우 인문사회계가 155명(61.3%),

이공계가 58명(22.9%)으로 인문사회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이외 예체능계 19명(7.5%), 법학계 12명(4.7%), 의학계 8명(3.2%), 미정 1명(0.4%)이었다. 거주지는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와 자취 및 하숙이 각각 164명(64.8%)과 75명(29.6%)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이외 기숙사 13명(5.1%), 친척집 1명(0.4%) 순이었다. 경제적 활동에 대하여는 경제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수가 157명(62.1%)으로 가장 많았고, 아르바이트나 인턴을 하고 있는 경우가 각각 81명(32.0%)과 15명(5.9%)으로 그 뒤를 이었다. 부모에게 경제적 도움을 받는 정도에 대하여는 부모에게서 대부분의 경제적 도움을 받는다는 답이 180명(71.1%)으로 가장 많았고, 부분적으로 경제적 도움을 받는다는 답이 73명(28.9%)이었다.

#### 측정도구

본 연구의 질문지는 부모에 대한 애착, 자아존중감, 외로움 및 우울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문항은 자기 보고로 응답되었다.

##### 부모애착

부모에 대한 애착을 측정하기 위하여 Armsden과 Greenberg(1987)가 개발한 부모 및 또래 애착척도(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PPA])의 개정본인 IPPA-R(Raja, McGee, & Stanton, 1992)을 옥정(1998)이 번안, 수정한 척도 중, 부모애착 척도 25문항을 사용하였다. IPPA-R은 신뢰감(10문항), 의사소통(9문항), 소외감(6문항)의 3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애착과 모애착을 분리하

여 측정하였다. 각 요인별 문항의 예를 들면, 신뢰감의 경우 '다른 분이 나의 아버지(어머니)였으면 좋겠다.', '나는 마음의 부담을 떨쳐 버리고 싶을 때, 아버지(어머니)께 의지할 수 있다.' 등이, 의사소통은 '아버지(어머니)께 나의 감정을 드러내 봐야 소용없다고 생각한다.', '나는 아버지(어머니)께 나의 어려움과 근심거리에 대해 말씀드린다.' 등이, 소외감은 '나는 아버지(어머니)와 함께 있을 때, 쉽게 기분이 나빠진다.', '나의 아버지(어머니)는 내가 요즘 어떤 일을 겪는지 이해하지 못하신다.' 등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2점)', '그런 편이다(3점)', '매우 그렇다(4점)'의 4점 Likert식 척도로 측정하였다. 각 하위요인의 점수가 높을수록 그 하위요인의 특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각 요인의 문항 간 내적합치도(Cronbach's  $\alpha$ )는 부(모)애착의 경우 신뢰감 .85(.78), 의사소통 .90(.87), 소외감 .75(.67)이었다.

#####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Rosenberg(1965)의 자아존중감 척도(Rosenberg Self-Esteem Scale [RSES])를 어주경(1998)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RSES는 전반적 자아존중감을 측정하는 도구로 단일요인의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의 예로는 '나는 내가 장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나는 나에게 자랑할 만한 것들이 별로 없다고 느낀다.', '나는 내 자신을 좀 더 존중할 수 있으면 하고 바란다.' 등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2점)', '그런 편이다(3점)', '매우 그렇다(4점)'의 4점 Likert식 척도를 사용하여 측

정하였다. 부정적 의미의 문항은 역채점한 후 평균을 산출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하도록 하였다. 본 척도의 문항 간 내적합치도(Cronbach's  $\alpha$ )는 .87이었다.

### 외로움

성인진입기 여성의 외로움을 측정하기 위하여 Russell, Peplau와 Ferguson(1978)이 개발한 UCLA 외로움 척도를 Russell, Peplau와 Cutrona(1980)가 개정한 것을 박선영과 도현심(1998)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사회적 관계에서의 만족 여부를 측정하는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의 예로는 '나는 나의 관심사와 생각을 주위 사람들과 함께 나누지 않는다.', '나를 정말로 이해해주는 사람들이 있다.', '나는 너무 내성적이라서 행복하지 않다.' 등을 들 수 있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2점)', '그런 편이다(3점)', '매우 그렇다(4점)'의 4점 Likert식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긍정적 의미의 문항을 역채점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외로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문항 간 내적합치도는 .91이었다.

### 우울

우울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Radloff(1977)의 역학연구센터 우울 척도(The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Depression Scale [CES-D])를 전경구, 최상진과 양병창(2001)이 번안, 수정한 통합적 한국판 CES-D 척도를 사용하였다. CES-D는 지난 일주일 동안 경험한 우울의 정도를 묻는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CES-D의 하위요인에 대하여는 연구마다 다른 결과

를 제시하고 있으나(전경구 등, 2001), 배성우와 신원식(2005)은 원척도에서 제시된 요인구조가 가장 적절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도 우울 감정(7문항), 긍정적 감정(4문항), 신체 및 행동 둔화(7문항), 대인관계(2문항)의 4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하였다.

각 요인별 문항의 예를 들면, 우울 감정의 경우 '가족이나 친구가 도와주더라도 울적한 기분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갑자기 울음이 나왔다.' 등이 있으며, 긍정적 감정의 경우 '미래에 대하여 희망적으로 느꼈다.', '생활이 즐거웠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체 및 행동 둔화의 경우에는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던 일들이 귀찮게 느껴졌다.', '하는 일마다 힘들게 느껴졌다.' 등의 문항을 그 예로 들 수 있으며, 대인관계의 경우 '사람들이 나에게 차갑게 대하는 것 같았다.',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았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한 반응은 '극히 드물게(1점)', '가끔(2점)', '자주(3점)', '거의 대부분(4점)'의 4점 Likert식 척도로 평가하였다. 각 하위요인의 점수가 높을수록 그 하위요인의 특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각 요인의 문항 간 내적합치도(Cronbach's  $\alpha$ )는 우울 감정 .87, 긍정적 감정 .82, 신체 및 행동 둔화 .71, 대인 관계 .65이었다.

### 조사절차 및 자료분석

#### 조사절차

본 조사의 자료수집은 두 가지 경로로 진행되었다. 먼저 서울시에 위치한 대학교의 계절학기 강의시간에 강사 동의하에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n = 50$ ), 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이

이용할 수 있는 대학 포털사이트를 이용하여 질문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n = 264$ ). 설문은 총 314부가 수거되었으며 앞서 기술한 Arnett (2000)의 성인진입기 기준을 기준으로 만 18-25세에 해당하지 않는 14명, 정규직 및 계약직으로 일하는 취업자 25명, 부모에게서 경제적으로 독립하였다고 응답한 8명, 불성실하게 응답한 14명을 제외하고 총 253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는 SPSS 19.0 프로그램과 AMOS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변인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으며, 부모애착, 자아존중감 및 외로움이 성인진입기 여성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탐색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을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간접효과의 유의성은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사용하여 확인하였다.

## 결 과

### 측정변인 간의 상관관계 분석

성인진입기 여성이 지각한 부모애착, 자아존중감, 외로움 및 우울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변인들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표 1).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부모애착과 우울 간의 상관관계와 관련하여 부애착의 경우 신뢰감은 우울의 하위요인인 우울 감정( $r = -.15, p < .05$ ), 신체 및 행동 둔화( $r = -.14, p < .05$ ), 대

인관계( $r = -.15, p < .05$ )와 유의한 부적 상관을, 긍정적 감정( $r = .18, p < .01$ )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의사소통의 경우에는 대인관계를 제외한 우울 감정( $r = -.19, p < .01$ )과 신체 및 행동둔화( $r = -.15, p < .05$ )와 유의한 부적 상관을, 긍정적 감정( $r = .27, p < .001$ )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소외감은 우울의 하위요인인 우울 감정( $r = .22, p < .001$ ), 신체 및 행동 둔화( $r = .28, p < .001$ ), 대인관계( $r = .16, p < .01$ )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긍정적 감정( $r = -.26, p < .001$ )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모애착의 경우, 신뢰감은 우울의 하위요인 중 긍정적 감정( $r = .19, p < .01$ )과만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으며, 의사소통의 경우에는 대인관계를 제외한 우울 감정( $r = -.19, p < .01$ )과 신체 및 행동둔화( $r = -.19, p < .01$ )와 유의한 부적 상관을, 긍정적 감정( $r = .30, p < .001$ )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소외감 또한 대인관계를 제외한 우울 감정( $r = .24, p < .001$ )과 신체 및 행동둔화( $r = .25, p < .001$ )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긍정적 감정( $r = -.30, p < .001$ )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 즉, 아버지에게 신뢰감을 가지고, 의사소통이 원활하며 소외감을 덜 지각할수록 우울한 정서가 적고, 긍정적 정서를 더 많이 느끼며 신체화 증상을 덜 경험하였다. 또한 어머니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긍정적 정서가 높았으며, 아버지에 대한 신뢰감이 높고 소외감이 낮을수록 대인관계에서 오는 우울을 덜 지각하였다.

둘째, 부모애착과 자아존중감, 그리고 자아존중감과 우울 간의 상관관계와 관련하여, 부모애착의 하위요인인 신뢰감(아버지:  $r = .27, p < .001$ , 어머니:  $r = .31, p < .001$ )과 의사



표 1. 부모애착, 자아존중감, 외로움 및 우울 간의 상관관계와 각 변인의 평균 및 표준편차 (N = 253)

| 변인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
| <b>부애착</b>     |                     |                     |                     |                     |                     |                     |                     |                     |                     |                     |                    |      |
| 1. 신뢰감         | -                   |                     |                     |                     |                     |                     |                     |                     |                     |                     |                    |      |
| 2. 의사소통        | .83 <sup>***</sup>  | -                   |                     |                     |                     |                     |                     |                     |                     |                     |                    |      |
| 3. 소외감         | -.75 <sup>***</sup> | -.73 <sup>***</sup> | -                   |                     |                     |                     |                     |                     |                     |                     |                    |      |
| <b>모애착</b>     |                     |                     |                     |                     |                     |                     |                     |                     |                     |                     |                    |      |
| 4. 신뢰감         | .47 <sup>***</sup>  | .37 <sup>***</sup>  | -.34 <sup>***</sup> | -                   |                     |                     |                     |                     |                     |                     |                    |      |
| 5. 의사소통        | .46 <sup>***</sup>  | .45 <sup>***</sup>  | -.39 <sup>***</sup> | .84 <sup>***</sup>  | -                   |                     |                     |                     |                     |                     |                    |      |
| 6. 소외감         | -.46 <sup>***</sup> | -.44 <sup>***</sup> | .57 <sup>***</sup>  | -.69 <sup>***</sup> | -.69 <sup>***</sup> | -                   |                     |                     |                     |                     |                    |      |
| <b>자아존중감</b>   |                     |                     |                     |                     |                     |                     |                     |                     |                     |                     |                    |      |
| 7. 자아존중감       | .27 <sup>***</sup>  | .30 <sup>***</sup>  | -.34 <sup>***</sup> | .31 <sup>***</sup>  | .39 <sup>***</sup>  | -.36 <sup>***</sup> | -                   |                     |                     |                     |                    |      |
| <b>외로움</b>     |                     |                     |                     |                     |                     |                     |                     |                     |                     |                     |                    |      |
| 8. 외로움         | -.26 <sup>***</sup> | -.24 <sup>***</sup> | .34 <sup>***</sup>  | -.17 <sup>**</sup>  | -.23 <sup>***</sup> | .21 <sup>***</sup>  | -.52 <sup>***</sup> | -                   |                     |                     |                    |      |
| <b>우울</b>      |                     |                     |                     |                     |                     |                     |                     |                     |                     |                     |                    |      |
| 9. 우울 감정       | -.15 <sup>*</sup>   | -.19 <sup>**</sup>  | .22 <sup>***</sup>  | -.11                | -.19 <sup>**</sup>  | .24 <sup>***</sup>  | -.62 <sup>***</sup> | .40 <sup>***</sup>  | -                   |                     |                    |      |
| 10. 긍정적 감정     | .18 <sup>**</sup>   | .27 <sup>***</sup>  | -.26 <sup>***</sup> | .19 <sup>**</sup>   | .30 <sup>***</sup>  | -.30 <sup>***</sup> | .63 <sup>***</sup>  | -.40 <sup>***</sup> | -.64 <sup>***</sup> | -                   |                    |      |
| 11. 신체 및 행동 둔화 | -.14 <sup>*</sup>   | -.15 <sup>*</sup>   | .28 <sup>***</sup>  | -.10                | -.19 <sup>**</sup>  | .25 <sup>***</sup>  | -.51 <sup>***</sup> | .36 <sup>***</sup>  | .73 <sup>***</sup>  | -.55 <sup>***</sup> | -                  |      |
| 12. 대인관계       | -.15 <sup>*</sup>   | -.12                | .16 <sup>**</sup>   | -.07                | -.08                | .11                 | -.28 <sup>***</sup> | .35 <sup>***</sup>  | .50 <sup>***</sup>  | -.33 <sup>***</sup> | .40 <sup>***</sup> | -    |
| M              | 2.90                | 2.58                | 2.22                | 3.21                | 3.07                | 2.03                | 2.83                | 1.92                | 1.77                | 2.31                | 1.97               | 1.27 |
| SD             | 0.55                | 0.60                | 0.53                | 0.43                | 0.53                | 0.47                | 0.52                | 0.41                | 0.64                | 0.69                | 0.57               | 0.45 |

\* p < .05. \*\* p < .01. \*\*\* p < .001.

소통(아버지:  $r = .30, p < .001$ , 어머니:  $r = .39, p < .001$ )은 자아존중감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소외감(아버지:  $r = -.34, p < .001$ , 어머니:  $r = -.36, p < .001$ )은 유의한 부적 상관을 가졌다. 즉, 성인진입기 여성이 부모를 신뢰하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며, 소외감을 덜 느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았다. 또한 자아존중감은 우울의 하위 요인인 우울 감정( $r = -.62, p < .001$ ), 신체 및 행동 둔화( $r = -.51, p < .001$ ), 대인관계( $r = -.28, p < .001$ )와 유의한 부적 상관을, 긍정적 감정( $r = .63, p < .001$ )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즉,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우울을 덜 지각하였다.

셋째, 부모애착과 외로움, 그리고 외로움과 우울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부모애착의 하위요인인 신뢰감(아버지:  $r = -.26, p < .001$ , 어머니:  $r = -.17, p < .01$ )과 의사소통(아버지:  $r = -.24, p < .001$ , 어머니:  $r = -.23, p < .001$ )은 외로움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소외감(아버지:  $r = .34, p < .001$ , 어머니:  $r = .21, p < .001$ )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즉, 부모와 신뢰로운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으며, 소외감을 느끼는 여성일수록 외로움을 높게 지각하였다. 외로움은 또한 우울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는데, 우울의 하위 요인인 우울 감정( $r = .40, p < .001$ ), 신체 및 행동 둔화( $r = .36, p < .001$ ), 대인관계( $r = .33, p < .001$ )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긍정적 감정( $r = -.40, p < .001$ )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즉, 외로움이 높을수록 성인진입기 여성은 우울감을 많이 느끼고 긍정적 정서는 덜 느끼며, 우울로 인한 신체화 증상과 대인관계에서의 우울을 더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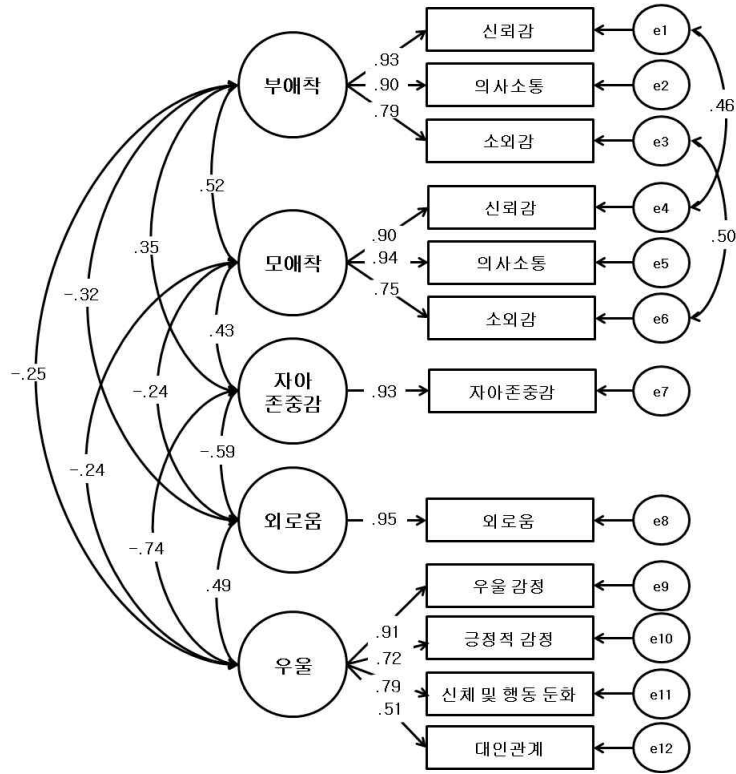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자아존중감은 외로움과 유의한

부적 상관( $r = -.52, p < .001$ )을 보여,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외로움을 덜 지각하였다.

#### 측정모형 분석

성인진입기 여성의 부모애착, 자아존중감, 외로움 및 우울을 측정하는 하위요인들이 각 잠재변인을 잘 측정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을 실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의 모수 추정방식은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Method)을 사용하였다.

초기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본 결과,  $\chi^2 = 182.93(df = 46, p < .001)$ ,  $\chi^2/df = 3.98$ , GFI(Goodness of Fit Index) = .90, NFI(Normed Fit Index) = .91, TLI(Tucker-Lewis Index) = .90, CFI(Comparative Fit Index) = .93,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 .11(90% CI = .09, .13)로 나타나 적절한 수준의 적합도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모형을 수정하기 위하여 오차변량 간 공분산에 대한 수정지수(Modification Index)를 살펴보았다. 수정지수가 10 이상일 때는 오차변량 간 상관이 높은 것을 뜻하므로, 수정지수가 높은 오차변량 간에 공분산 경로를 설정할 수 있다(김계수, 201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같은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수정지수가 가장 높은 부애착-소외감(e3)과 모애착-소외감(e6), 부애착-신뢰감(e1)과 모애착-신뢰감(e4) 오차항 간 공분산을 설정하여 모형을 수정한 후 재분석하였다( $MI_{e3-e6} = 53.28, MI_{e1-e4} = 23.66$ ). 그 결과,  $\chi^2 = 101.71(df = 44, p < .001)$ ,  $\chi^2/df = 2.31$ , GFI = .94, NFI = .95, TLI = .95, CFI = .97, RMSEA = .07(90% CI = .05, .09)로 나타나 적합도 기준을 모두 충족하였다. 또한 최종모형의 표준화



- 주 1) 제시된 수치는 표준화 추정치( $\beta$ )임.
- 주 2) 잠재변인에서 측정변인으로의 계수는 모두  $\alpha = .001$  수준에서 유의함.
- 주 3) 부모애착의 소외감과 우울의 긍정적 감정의 경우 방향성을 맞추기 위해 역코딩 하였음.

그림 2. 측정모형의 모수추정치

회귀계수는 .51~.95로,  $\alpha = .001$  수준에서 모두 유의하여 측정변인들이 각 잠재변인을 잘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

구조모형 분석

부모애착, 자아존중감과 외로움이 성인진입기 여성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확인하기 위하여 구조모형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chi^2 = 101.71(df = 44, p < .001)$ ,  $\chi^2/df = 2.31$ , GFI = .94, NFI = .95, TLI = .95, CFI = .97,

RMSEA = .07(90% CI = .05, .09)로 나타나 적합도 기준을 모두 충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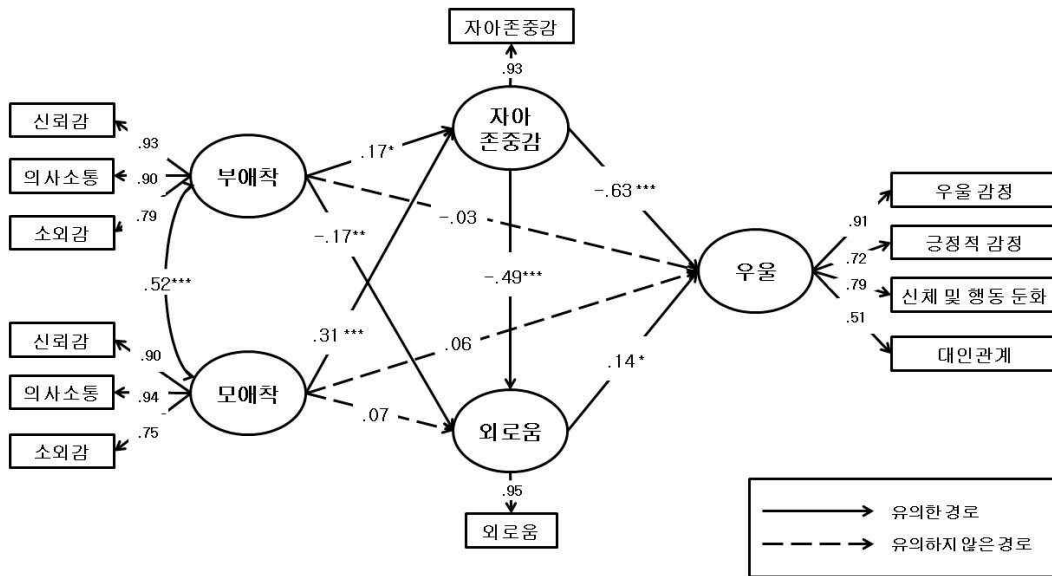
부모애착, 자아존중감과 외로움이 성인진입기 여성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표 2, 그림 3)를 살펴보면, 먼저 부모에 대한 애착이 우울에 미치는 직접적인 경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둘째, 부모에 대한 애착이 자아존중감을 통해 우울에 미치는 간접적인 경로를 살펴보면, 부모에 대한 애착은 자아존중감(부:  $\beta = .17, p < .05$ , 모:  $\beta = .31, p < .001$ )에, 자아존중감은 우울( $\beta = -.63, p < .001$ )에 유의한

표 2. 구조모형의 모수추정치

(N = 253)

| 잠재변인 간의 경로 | B    | $\beta$ | SE  | C.R.     |
|------------|------|---------|-----|----------|
| 부애착→우울     | -.03 | -.03    | .07 | -.42     |
| 모애착→우울     | .09  | .06     | .11 | .88      |
| 부애착→자아존중감  | .17  | .17     | .07 | 2.37*    |
| 모애착→자아존중감  | .46  | .31     | .11 | 4.29***  |
| 자아존중감→우울   | -.70 | -.63    | .07 | -9.83*** |
| 부애착→외로움    | -.14 | -.17    | .05 | -2.68**  |
| 모애착→외로움    | .07  | .07     | .08 | .84      |
| 외로움→우울     | .20  | .14     | .08 | 2.37*    |
| 자아존중감→외로움  | .39  | -.49    | .05 | -8.28*** |

\* $p < .05$ . \*\* $p < .01$ . \*\*\* $p < .001$ .



주 1) 제시된 수치는 표준화 추정치( $\beta$ )임.

주 2) 오차항은 생략함.

주 3) 잠재변인에서 측정변인으로의 계수는 모두  $\alpha = .001$  수준에서 유의함.

주 4) 부모애착의 소외감과 우울의 긍정적 감정의 경우 방향성을 맞추기 위해 역코딩 하였음.

\* $p < .05$ . \*\* $p < .01$ . \*\*\* $p < .001$ .

그림 3. 부모애착, 자아존중감 및 외로움이 성인진입기 여성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영향을 미쳤다. 즉, 부모에 대한 애착 수준이 높을수록 성인진입기 여성의 자아존중감은 높았으며, 이는 낮은 수준의 우울로 이어졌다. 셋째, 부모에 대한 애착이 외로움을 통해 우울에 미치는 간접적인 경로를 살펴보면, 부애착은 외로움( $\beta = -.17, p < .01$ )에, 외로움은 우울( $\beta = .14, p < .05$ )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모애착이 외로움에 미치는 경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즉, 부애착이 높을수록 외로움을 덜 경험하고, 이는 낮은 수준의 우울로 이어졌으나, 모애착은 외로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부모에 대한 애착이 자아존중감과 외로움을 통해 우울에 미치는 간접적인 경로를 살펴보면, 부애착과 모애착은 자아존중감(부:  $\beta = .17, p < .05$ , 모:  $\beta = .31, p < .001$ )에, 자아존중감은 외로움( $\beta = -.49, p < .001$ )에, 외로움은 우울( $\beta = .14, p < .05$ )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즉, 부

모에 대한 애착 수준이 높을수록 성인진입기 여성의 자아존중감은 높아지고, 이는 외로움을 감소시키는데 영향을 미쳐, 그로 인해 우울 수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잠재변인 간의 인과적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부모애착과 자아존중감 및 외로움이 성인진입기 여성의 우울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총효과를 살펴보았다(표 3). 통계적 유의성은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그 결과, 부모애착이 성인진입기 여성의 우울에 미치는 간접효과(부:  $\beta = -.14, p < .01$ , 모:  $\beta = -.21, p < .01$ )는 유의하였다. 각 변인이 성인진입기 여성의 우울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에서도 차이가 있었는데, 성인진입기 여성의 우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자아존중감이었으며( $\beta = -.70, p < .001$ ), 부애착( $\beta = -.17, p < .05$ ), 외로움( $\beta = .14, p < .05$ ) 순이었다. 또한 다중상

표 3. 부모애착, 자아존중감, 외로움 및 우울 간의 효과 분석

| 잠재변인 간의 경로  | 표준화된 경로계수 |         |         | SMC |
|-------------|-----------|---------|---------|-----|
|             | 직접효과      | 간접효과    | 총효과     |     |
| 부애착 → 우울    | -.03      | -.14**  | -.17*   | .49 |
| 모애착 → 우울    | .06       | -.21**  | -.15    |     |
| 자아존중감 → 우울  | -.63***   | -.07*   | -.70*** |     |
| 외로움 → 우울    | .14*      | -       | .14*    | .29 |
| 부애착 → 외로움   | -.17**    | -.08*   | -.25*** |     |
| 모애착 → 외로움   | .06       | -.15*** | -.09    |     |
| 자아존중감 → 외로움 | -.49***   | -       | -.49*** | .18 |
| 부애착 → 자아존중감 | .17*      | -       | .17*    |     |
| 모애착 → 자아존중감 | .31**     | -       | .31**   |     |

주 1) 유의성은 부트스트래핑 방법에 의한 결과임.

2) SMC(Squared Multiple Correlation)는 다중상관치임

\* $p < .05$ . \*\* $p < .01$ . \*\*\* $p < .001$ .

관치를 산출한 결과, 부모애착 및 자아존중감과 외로움은 성인진입기 여성의 우울의 49%를, 부모애착과 자아존중감은 외로움의 29%를, 부모애착은 자아존중감의 18%를 설명하였다.

## 논 의

본 연구는 성인진입기 여성의 부모애착이 우울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과, 자아존중감과 외로움을 통한 간접적 영향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애착과 모애착 모두 성인진입기 여성의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부모의 애착이 우울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선행연구들도 일관적이지 않은 결과를 보고하고 있는데, 본 연구의 결과는 부모애착이 청소년 및 대학생의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김갑숙 등, 2009; 박애규, 2009; Kenny & Sirin, 2006), 불안 애착과 회피애착 수준이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보고(Wei et al., 2005)와는 일치한다. 하지만 부애착만 대학생의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모애착은 우울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이주연, 하상희, 2012)와는 부분적으로 일치하고, 부모애착이 청소년 및 대학생의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들(이정수, 2006; 최소정 등, 2010; Constantine, 2006)과는 상반되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를 해석해보면, 청소년기부터 학교생활이나 사회적 활동에 할애하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부모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게 되는데, 특히 여성은 이 시기부

터 부모와의 관계만큼 타인과의 관계나, 내적 작동모델을 통해 형성된 개인내적 요인이 정신건강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조혜진, 2006; Furman & Buhrmester, 1992). 따라서 대학 진학 후 부모와 함께 하는 시간이나 의미 있는 활동이 감소하면서, 부모와의 애착이 성인진입기 여성의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자아존중감 및 외로움이나 다른 요인들을 통하여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애착과 성인진입기 여성의 우울을 매개하는 제 3의 변인들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부모애착이 자아존중감을 통해 성인진입기 여성의 우울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을 살펴보면, 부모애착은 자아존중감을 통해 성인진입기 여성의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애착 수준이 낮을수록 자아존중감은 낮았으며, 이는 높은 수준의 우울로 이어졌다. 이러한 결과는 부애착과 모애착이 자아존중감을 통하여 우울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김갑숙 등, 2009)와, 모애착이 자아존중감을 통해 우울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이정수, 2006)와 일치한다. 또한 성인진입기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부모애착과 우울의 관계를 자기가치감이 완전매개한다는 연구결과(Kenny & Sirin, 2006)와 유사한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이외에도 비록 부모애착, 자아존중감 및 우울 간 경로를 살펴본 것은 아니지만 청소년 및 대학생이 부모애착 수준을 높게 지각할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았다고 보고한 선행연구들(백지숙, 2000; 전은영, 권경인, 2011; 정병삼, 2010; Armsden & Greenberg, 1987; Greenberg, Siegel, & Leitch, 1983; Kostecky, 2005; Laible et al.,

2004; McGarvey et al., 2010; Parade et al., 2009; Wilkinson, 2004)과 자아존중감이 낮은 청소년 및 대학생이 우울을 더 많이 경험한다고 보고한 연구들(김현정, 손정락, 2006; 이윤주, 김진숙, 2012; Dixon & Kurpius, 2008)도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한다. 또한 자아존중감이 우울에 선행하는 변인임을 밝힌 메타분석의 결과(Sowislo & Orth, 2013)와, 자아존중감이 1년 후의 청소년의 우울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한 종단연구의 결과(Orth et al., 2008)와도 유사한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부모와 애착 수준이 높을수록 성인진입기 여성은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표상을 형성하여 스스로를 가치있는 사람으로 지각하고, 높은 수준의 자아존중감을 발달시키며, 이를 통해 자신의 긍정적인 면을 바라보고 수용하여 우울감을 덜 느끼기 때문에, 자아존중감의 향상이 우울 감소에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아버지에 대한 애착과 어머니에 대한 애착 수준이 낮을수록 자아존중감이 저하되어 우울로 나타날 수 있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박애규(2009)의 연구결과와는 차이를 보인다. 즉, 박애규(2009)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에 대한 애착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통해 우울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아버지에 대한 애착은 자아존중감을 통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나타나지 않아 본 연구의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지 않았다. 이러한 차이는 발달단계에서의 차이와 연구대상자의 성별의 차이가 혼합되어 해석하기 쉽지 않다. 즉, 박애규(2009)의 연구에서는 청소년 전체 집단을 대상으로 부모에 대한 애착, 자아존중감, 우울 간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본 반면, 본 연구에서는 성인진입기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비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여자 고등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강경연, 이자명, 문영주와 홍성숙(2014)의 연구에서는, 본 연구와 마찬가지로 부애착과 모애착이 모두 진로태도 성숙에 유의한 영향을 발휘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어 아버지에 대한 애착의 영향력이 자녀의 성별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음을 제안하고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청소년과 성인진입기의 두 가지 발달단계를 모두 포함하여 부모와 자녀의 성에 따른 차이를 보다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부모에 대한 애착이 성인진입기 여성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자아존중감이 중요한 개인 내적 요인으로 작동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성인진입기에도 부모는 여전히 자녀에게 필요한 지지를 제공하는 가장 중요한 존재로서(Arnett, 2006) 개인의 자아존중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개인이 부모와의 애착 관계를 통해 내린 자기에 대한 평가가 우울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부모와의 애착 문제가 있는 성인진입기 여성의 우울에 개입하는데 있어, 관계적 측면뿐 아니라 자아존중감이 향상될 수 있도록 증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부모애착이 외로움을 통해 성인진입기 여성의 우울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은 부애착의 경우에만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부애착 수준이 낮을수록 외로움 수준이 높았으며, 이는 높은 수준의 우울로 연결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 시기에 대인관계 문제가 외로움을 통해 우울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Cooley et al., 2010; Larose et al., 2002)와 유사

한 맥락에서 해석해 볼 수 있다. 또한 부모 애착이 대학생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의 성차를 본 연구(이주연, 하상희, 2012)에서, 아버지에 대한 애착은 여자대학생의 정신건강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어, 아버지에 대한 애착이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중요하다고 보고한 선행 연구의 결과와 유사한 맥락이다. 하지만, 모의 심리적 통제와 모-자녀의 관계만족도가 외로움을 통해 청소년의 우울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안명희, 2014)와는 상반된다.

이러한 결과는 학업완료 및 진로 탐색과 같은 발달과업 성취를 위하여 부모의 경제적 지원이 필수적인 성인진입기의 발달적 특성과 관련지어 해석해 볼 수 있다(김은정, 2011). 즉, 우리나라는 가정의 소득을 주로 남성이 책임지고 있는 구조(통계청, 2013)인데,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해야하는 이 시기에 아버지와 애착 수준이 낮은 것은 가족에게서 필요한 지원을 충분히 받고 있다고 느끼기 어렵게 하고, 이로 인해 소망과 현실의 불일치에서 비롯되는 고통스러운 정서인 외로움 및 우울을 경험하게 되는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반면 어머니에 대한 애착은 성인진입기 여성이 경험하는 외로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를 통해 어머니에 대한 애착은 외로움이나 우울과 같은 정서적 측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표상적인 측면, 즉 스스로에 대한 내적 평가에 더 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 외로움이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심스럽게 해석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우울을 감소시키기 위한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외로움이나 자아존중감과 같은 개인적 특성뿐 아니라 부모에 대한 애착과 같은 관계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즉, 성인진입기 여성의 우울에 효과적으로 개입하기 위해서는 부모와 형성하고 있는 애착의 질을 파악하고, 이에 따라 차별화된 중재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어머니와의 애착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성인진입기 여성의 경우에는 스스로에 대한 평가를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우울을 감소시키는 데 더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부모애착은 자아존중감과 외로움을 통해 성인진입기 여성의 우울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즉, 부모애착은 자아존중감에, 자아존중감은 외로움에, 그리고 외로움은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으로써 그 경로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매개변인인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또 다른 매개변인인 외로움을 덜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자아존중감이 낮은 청소년이 외로움을 더 느끼며(김정운, 김영희, 2009; 임연진, 나유미, 2003; McWhirter, Besett-Alesch, Horibara, & Gar, 2002), 낮은 자아존중감이 5년 후 청소년기 외로움의 위험 요인임을 밝힌 선행연구(Vanhast et al., 2013)의 결과를 지지한다. 또한 성인애착과 대학생의 우울을 사회적 자기효능감과 외로움이 매개한다고 보고한 연구(Wei et al., 2005)와, 아동기 부모애착과 생활만족도 간의 관계를 자아존중감과 외로움이 매개한다고 보고한 연구(전효정, 2005)와도 유사한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즉, 부모애착 수준이 높은 성인진입기 여성은 자기 자신을 가치있는 사람으로 지각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맥락에서 유발되는 고통스러운 정서인 외로움을 덜 경험하여, 전반적인 우울 수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성인진입기 여성의 우울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부모와의 애착의 질을 높이는 것 뿐 아니라, 개인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고, 외로움을 감소하도록 돕는 것이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종합해보면, 성인진입기 여성이 지각한 부애착과 모애착은 각각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쳤고, 자아존중감은 외로움에 영향을 미쳐, 부모애착은 자아존중감과 외로움을 통해서 우울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애착이 모애착보다 외로움이나 우울과 같은 정서적 고통에 더 큰 영향력을 보였다는 점에서, 성인진입기 여성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아버지에 대한 애착이 지니는 중요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 결과, 자아존중감이 성인진입기 여성의 우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음이 밝혀져, 이 시기 여성의 우울을 중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 우울을 감소시키기 위한 프로그램들은 부모와의 관계적 요인이나 자아존중감보다는 인지적 사고나 사회적 기술을 향상시키는 데에 더 초점을 두고 있다 (Stice, Shaw, Bohon, Marti, & Rohde, 2010). 따라서 우울 유병률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성인진입기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우울 중재 프로그램이 개발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프로그램에서는 특히 아버지와의 관계 개선 및 자아존중감 향상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Arnett(2000, 2006)이 성인진입기의 기준으로 제시한 조건들 중에서 연령, 결혼 여부, 직업, 경제적 독립성 여부와 같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만을 사용하여 연구대상을 선정하였다. 하지만 성인진입기는 자기책임감을 느끼지 못하고, 스스로를 성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주

관적 판단 또한 중요한 발달기준이기 때문에, 후속 연구에서는 성인진입기의 주관적인 기준을 반영할 수 있는 추가적 설문을 개발하여 대상을 더 구체적으로 선정해 연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Arnett(2000, 2007)이 제시한 성인진입기의 연령 기준에 따라, 대상 연령을 만 18에서 25세로 제한하였다. 하지만 취업준비 기간이 점점 길어지면서 이 연령 범위를 벗어나지만 여전히 성인진입기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이 경우 기존 연령범위에 속하는 집단보다 불안이나 우울 수준은 더 높을 수 있기 때문에, 후속 연구에서는 연령제한 없이 성인진입기의 특성에 속하는 대상을 선정해 연구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서울과 수도권에 거주하는 성인진입기 여성을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연구대상을 선정하는 데 있어 앞서 언급한 것처럼 객관적인 기준만을 사용하였으며, 실제 포함된 대부분이 대학 재학생이라는 점에서 본 연구 결과를 일반적인 성인진입기 여성에게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더 다양한 지역과 특성을 가진 성인진입기 여성을 대상으로 후속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모든 변인들이 한 시점에서 측정된 횡단연구이기 때문에 변인 간의 인과관계를 살펴볼 수 없었으며, 성인진입기 동안 우울에 발달적 변화가 나타나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 후속 연구에서는 종단적 연구설계를 통해 성인진입기 동안 나타날 수 있는 발달적 변화 여부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과의 상호적 영향을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의의를 갖는다. 첫째, 본 연구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성인진입기라는

독립적인 발달단계가 제안되고, 이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인진입기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국내 상황에서 성인진입기 여성을 대상으로 부모애착과 우울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둘째, 부애착과 모애착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과 경로에 차이가 있다는 선행 연구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모애착을 살펴보는 많은 연구들은 모애착만을 살펴 보거나 부모로 통합하여 애착의 영향력을 살펴 보는데 그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부애착과 모애착을 구분하여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였으며, 부애착이 모애착보다 성인진입기 여성의 외로움 및 우울에 더 큰 영향력을 미친다는 점을 발견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성인진입기 여성을 위한 우울 상담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성인진입기 여성의 정신건강과 발달단계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김계수 (2010). AMOS 18.0 구조방정식모형 분석. 서울: 한나래.
- 김은정 (2011). 새로운 생애 발달 단계로서의 성인모색기(Emerging Adulthood): 20대 전반 여대생을 중심으로. *사회와이론*, 19(2), 329-372.
- 김정민, 유안진 (2005). 부모의 이혼과 청소년의 우울과 외로움: 부모애착과 또래애착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인간발달연구*, 12(4), 159-176.
- 김정운, 김영희 (2009).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이 청소년의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10(4), 2287-2301.
- 김현정, 손정락 (2006). 대학생의 완벽주의와 자아존중감 및 우울, 주관적 안녕감 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1(2), 345-361.
- 도현심 (1999). 부모에 대한 애착 및 또래경험과 초기 청소년의 외로움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0(3), 33-49.
- 박선영, 도현심 (1998). 가족기능 및 자아존중감과 청소년의 외로움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19(1), 229-244.
- 박애규 (2009). 부모애착과 청소년의 우울 및 불안과의 관계: 또래애착과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검증.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배성우, 신원식 (2005). CES-D 척도(The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Depression Scale)의 요인구조 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방법의 적용. *보건과 사회과학*, 18, 165-190.
- 백지숙 (2000). 대학생의 부모에 대한 애착이 자아존중감, 대학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정관리학회지*, 18(1), 127-137.
- 안명희 (2014). 모의 심리적 통제와 청소년 우
- 강경연, 이자명, 문영주, 홍성숙 (2014). 여자고등학생이 지각한 부, 모애착과 양육태도가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 및 학교생활, 부모와의 관계 만족감 조절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4(9), 201-218.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4). *우울증·조울증 진료현황*. <http://www.hira.or.kr>
- 김갑숙, 전영숙, 이철우 (2009). 청소년의 부모애착, 자아분화, 자아존중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치료학회지*, 17(1), 209-224.

- 울: 모-자녀 관계만족도, 분노, 외로움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6(3), 737-760.
- 어주경 (1998). 저소득층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이 아동의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육 정 (1998). 청소년기 애착 안정성과 우울성향의 관계: 지각된 유능감(Perceived Competence)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유병기 (2010). 대학생의 스트레스, 자아존중감이 불안에 미치는 영향. 한국상담심리치료학회지, 1(1), 33-43.
- 유현숙, 정혜정, 이주연 (2012).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애착과 우울감 및 분노표현 방식에 관한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21(1), 1-15.
- 이윤주, 김진숙 (2012). 영유아기 자녀를 둔 기혼여성의 양육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 자아존중감 안정성의 조절효과와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3(5), 2229-2249.
- 이은경, 박성연 (2011).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에 따른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청소년의 우울성향, 우울,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 인간발달연구, 18(4), 101-123.
- 이인숙, 최해림 (2005). 내면화된 수치심 척도(ISS)의 타당화 연구 - 애착, 과민성 자기애, 외로움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3), 651-670.
- 이정수 (2006). 부모 애착과 또래 애착이 중학생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주연, 하상희 (2012). 부모 애착이 남녀 대학생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심리적 독립과 이성관계태도의 매개 경로 분석. 상담학연구, 13(6), 2821-2837.
- 이지연 (2009). 모애착이 여고생의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 - 자기침묵과 수치심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청소년시설행경, 7(1), 39-53.
- 임연진, 나유미 (2003). 청소년의 부모-자녀 관계 및 자아존중감과 외로움간의 관계: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복지연구, 5(2), 61-69.
- 전겸구, 최상진, 양병창 (2001). 통합적 한국판 CES-D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6(1), 59-76.
- 전은영, 권경인 (2011). 애착과 독립이 대학생의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을 매개변인으로. 상담학연구, 12(1), 243-260.
- 전효정 (2005). 애착이 대학생의 심리적·신체적 건강에 영향을 주는 매커니즘: 과정적 요인으로서 자아존중감, 외로움과 생활만족도. 대한가정학회지, 43(9), 85-96.
- 정병삼 (2010). 부모-자녀애착과 부모지도감독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의 변화에 미치는 중단적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21(4), 5-30.
- 조혜진 (2006). 청소년의 또래 애착과 우울, 불안: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최소정, 배대석, 장문선 (2010). 자살생각과 관련된 부모와의 애착, 역기능적 신념 및 우울간의 관계분석. 상담학연구, 11(2), 571-582.
- 통계청 (2011). 정신질환실태조사. 서울: 통계청.
- 통계청 (2013). 성/연령별 경제활동인구. retrived

- from <http://kosis.kr>.
- Ainsworth, M. S., Blehar, M. C., Waters, E., & Wall, S. (1978). *Patterns of attachment*. Hillsdale, NJ: Erlbaum.
- Armsden, G. C., & Greenberg, M. T. (1987).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5), 427-454.
- Arnett, J. J. (2000). Emerging adulthood: A theory of development from the late teens through the twenties. *American Psychologist*, 55(5), 469-480.
- Arnett, J. J. (2006). *Emerging adulthood: Understanding the new way of coming of age*.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Arnett, J. J. (2007). Emerging adulthood: What is it, and what is it good for? *Child Development Perspectives*, 1(2), 68-78.
- Baker, O. E., & Bugay, A. (2011). Mediator and moderator role of lonelines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eer victimization and depressive symptoms. *Australian Journal of Guidance and Counselling*, 21(2), 175-185.
- Beck, A. T. (1976). *Cognitive therapy and the emotional disorders*. New York, NY: International University Press.
- Bowlby, J. (1969/1982). *Attachment and loss: Attachment* (vol. 1). New York: Basic Books.
- Bowlby, J. (1973). *Attachment and loss: Separation* (vol. 2). New York: Basic Books.
- Bowlby, J. (1980). *Attachment and loss: Loss, sadness and depression* (vol. 2). New York: Basic Books.
- Butler, A. C., Hokanson, J. E., & Flynn, H. A. (1994). A comparison of self-esteem lability and low trait self-esteem as vulnerability factors for depress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6(1), 166-177.
- Ceyhan, A. A., & Ceyhan, E. (2008). Loneliness, depression, and computer self-efficacy as predictors of problematic internet use. *CyberPsychology & Behavior*, 11(6), 699-701.
- Cheng, H., & Furnham, A. (2004). Perceived parental rearing style, self-esteem and self-criticism as predictors of happiness.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5(1), 1-21.
- Constantine, M. G. (2006). Perceived family conflict, parental attachment, and depression in African American female adolescents. *Cultural Diversity and Ethnic Minority Psychology*, 12(4), 697-709.
- Cooley, E. L., Van Buren, A., & Cole, S. P. (2010). Attachment styles, social skills, and depression in college women. *Journal of College Counseling*, 13(1), 50-62.
- Coyne, J. C., Gallo, S. M., Klinkman, M. S., & Calarco, M. M. (1998). Effects of recent and past major depression and distress on self-concept and coping.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7(1), 86-96.
- DiTommaso, E., Brannen-McNulty, C., Ross, L., & Burgess, M. (2003). Attachment styles, social skills and loneliness in young adult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5(2), 303-312.
- Dixon, S. K., & Kurpius, S. E. R. (2008). Depression and college stress among university undergraduates: Do mattering and self-esteem

- make a difference?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49(5), 412-424.
- Erikson, E. H. (1963). *Childhood and society*. New York: Norton.
- Furman, W., & Buhrmester, D. (1992). Age and sex differences in perceptions of networks of personal relationships. *Child Development*, 63(1), 103-115.
- Gomez, R., & McLaren, S. (2007). The inter-relations of mother and father attachment, self-esteem and aggression during late adolescence. *Aggressive Behavior*, 33(2), 160-169.
- Greenberg, M. T., Siegel, J. M., & Leitch, C. J. (1983). The nature and importance of attachment relationships to parents and peers during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2(5), 373-386.
- Greenberg, J., Solomon, S., Pyszczynski, T., Rosenblatt, A., Burling, J., Lyon, D., Simon, L., & Pinel, E. (1992). Why do people need self-esteem? Converging evidence that self-esteem serves an anxiety-buffering fun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3(6), 913-922.
- Jackson, J., & Cochran, S. D. (1990). Loneliness and psychological distress. *The Journal of Psychology*, 125(3), 257-262.
- Kenny, M. E., & Sirin, S. R. (2006). Parental attachment, self-worth, and depressive symptoms among emerging adults.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84(1), 61-71.
- Kong, F., & You, X. (2013). Loneliness and self-esteem as mediators between social support and life satisfaction in late adolescence. *Social Indicators Research*, 110(1), 271-279.
- Kostecky, K. (2005). Parental attachment, academic achievement, life events and their relationship to alcohol and drug use during adolescence. *Journal of Adolescence*, 28(5), 665-676.
- Laible, D. J., Carlo, G., & Roesch, S. C. (2004). Pathways to self-esteem in late adolescence: The role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empathy, and social behaviours. *Journal of Adolescence*, 27(6), 703-716.
- Larose, S., Guay, F., & Boivin, M. (2002). Attachment, social support, and loneliness in young adulthood: A test of two models. *Prevention and Treatment*, 6(1), 684-693.
- Le, H., Muñoz, R. F., Ippen, C. G., & Stoddard, J. L. (2003). Treatment is not enough: We must prevent major depression in wome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8(5), 1-15.
- Maag, J. W., & Irvin, D. M. (2005). Alcohol use and depression among African American and Caucasian adolescents. *Adolescence*, 40(157), 87-101.
- McBride, C. K., Paikoff, R. L., & Holmbeck, G. N. (2003). Individual and familial influences on the onset of sexual intercourse among urban african american adolescent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71(1), 159-167.
- McGarvey, E. L., Keller, A., Brown, G. L., & DeLonga, K. (2010). Parental bonding styles in relation to adolescent males' runaway behavior. *The Family Journal*, 18(1), 121-139.
- McWhirter, B. T., Besett-Alesch, T. M., Horibata,

- J., & Gat, I. (2002). Loneliness in high risk adolescents: The role of coping, self-esteem, and empathy. *Journal of Youth Studies*, 5(1), 69-84.
- Nelson, L. J., Padilla-Walker, L. M., Christensen, K. J., Evans, C. A., & Carroll, J. S. (2011). Parenting in emerging adulthood: An examination of parenting clusters and correlate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40(6), 730-743.
- Nolen-Hoeksema, S., & Girgus, J. S. (1994). The emergence of gender differences in depression during adolescence. *Psychological Bulletin*, 115(3), 424-443.
- Orth, U., Robins, R. W., & Roberts, B. W. (2008). Low self-esteem prospectively predicts depression in adolescence and young adulthoo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5(3), 695-708.
- Parade, S. H., Leerkes, E. M., & Blankson, A. N. (2009). Attachment to parents, social anxiety, and close relationships of female students over the transition to colleg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9(2), 127-138.
- Radloff, L. S. (1977). The CES-D Scale: A self-report depression scale for research in the general population.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1(3), 385-401.
- Raja, S. N., McGee, R., & Stanton, W. R. (1992). Perceived attachments to parents and peer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1(4), 471-485.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 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ussell, D., Peplau, L. A., & Cutrona, C. E. (1980). The revised UCLA loneliness scale: Concurrent and discriminant validity evid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9(3), 472-480.
- Russell, D., Peplau, L. A., & Ferguson, M. L. (1978). Developing a measure of lonelines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2(3), 290-294.
- Schulenberg, J. E., & Zerrett, N. R. (2006). Mental health during emerging adulthood: Continuity and discontinuity in courses, causes, and functions. In J. J. Arnett & J. L. Tanner(Eds.), *Emerging adults in America: Coming of age in the 21st century*. Washington, DC: APA Books.
- Sowislo, J. F., & Orth, U. (2013). Does low self-esteem predict depression and anxiety? A meta-analysis of longitudinal studies. *Psychological Bulletin*, 139(1), 213-240.
- Stice, E., Shaw, H., Bohon, C., Marti, C. N., & Rohde, P. (2010). A meta-analytic review of depression prevention programs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Factors that predict magnitude of intervention effect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77(3), 486-503.
- Vanhalst, J., Luyckx, K., Scholte, R. H., Engels, R. C., & Goossens, L. (2013). Low self-esteem as a risk factor for loneliness in adolescence: Perceived - but not actual - social acceptance as an underlying mechanism.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41(7), 1067-1081.
- Verboom, C. E., Sijtsema, J. J., Verhulst, F. C., Penninx, B. W. J. H., & Ormel, J. (2014).

- Longitudinal associations between depressive problems, academic performance, and social functioning in adolescent boys and girls. *Developmental Psychology*, 50(1), 247-257.
- Weeks, D. G., Michela, J. L., Peplau, L. A., & Bragg, M. E. (1980). Relation between loneliness and depression: A structural equation analy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9(6), 1238-1244.
- Wei, M., Russell, D. W., & Zakalik, R. A. (2005). Adult attachment, social self-efficacy, self-disclosure, loneliness, and subsequent depression for freshman college students: A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2(4), 602-614.
- Wilkinson, R. B. (2004). The role of parental and peer attachment in the psychological health and self-esteem of adolescen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3(6), 479-460.
- Witvliet, M., Brendgen, M., Lier, P. A. C., Koot, H. M., & Vitaro, F. (2010). Early adolescent depressive symptoms: Prediction from clique isolation, loneliness, and perceived social acceptance.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8(8), 1045-1056.
- 1차원고접수 : 2017. 04. 15.  
수정원고접수 : 2017. 06. 03.  
최종게재결정 : 2017. 06. 07.

## The Effects of Parental Attachment on Depression among Females in Emerging Adulthood: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and Loneliness

Nuri Kim

Nana Shin

Ewha Womans University

A total of 253 females in their emerging adulthood participated in a study investigating the direct and indirect effects of parental attachment on depression (through self-esteem and/or lonelines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parental attachment did not have a direct effect on depression. Second, parental attachment had an indirect effect on depression through self-esteem. Females with higher levels of parental attachment reported higher levels of self-esteem, and those with higher levels of self-esteem experienced lower levels of depression. Third, attachment to fathers had an indirect effect on depression through loneliness. Females who were securely attached to fathers displayed lower levels of loneliness, and those who reported lower levels of loneliness reported lower levels of depression. However, attachment to mothers did not have an indirect effect on depression through loneliness. Finally, parental attachment had an indirect effect on females' depression through self-esteem and loneliness. Discussion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paternal attachment and self-esteem in diminishing depression among females in their emerging adulthood.

*Key words* : *parental attachment, self-esteem, loneliness, depression, females in emerging adulthood*